

영천 대첩비 제막식

영천대회전 격전장에 30억원 투자, 6년여만에 완공



영천

대첩기념회(회장 金貞武)는 지난 27일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영천 호국원에서 이재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, 유재흥 장군을 비롯한 6·25참전원로, 이상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, 성우회 및 육사총동창회 회원, 영천전투 참전용사,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대첩비 제막식을 가졌다.

이 날 제막식을 가진 영천대첩비는 6·25전쟁 중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최후의 보루인 영천대회전에서 공산군의 남침을 저지, 격멸함으로써 조국의 자유를 지켜낸 영천대첩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공훈을 길이 빛내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, '96년 3월 8일 역대 제8사단장 친목회에서 건립결의를 한 이래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6여년이 지난 이날 역사적 제막식을 갖게 된 것이다.

김정무 회장은 식사를 통해 "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지연작전을 계속하던 72일간은 고난과 눈물로 점철된 시간이었고, 9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영천에서 적은 최후의 결전을 강요하였으며, 우리는 더 물러설 곳도 없는 이 곳에서 싸우고 또 싸워 세번 후퇴, 세번 반격을 반복한 것은, 실로 처절한 혈전이었다"고 회고하고, "결국 영천대회전은 자유수호의 일전이었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대전제였으며 북진반격의 전기를 만들었다. 안보의식이 걱정되는 이 마당에, 이 대첩비가 훗날 고난의 시대를 말해주어 나라를 지키는 교훈탑이 되고, 자유가 소중하고 자유가 대가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다."고 강조했다.